

경쟁 격렬한 뉴미디어시대 미국의 사전출판

학술적 가치와 상업성 조화 이루며 종이 및 디스크사전 모두 활기

유은영

美위스컨신대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현재 미국의 출판 시장에서 격렬한 경쟁을 보이고 있는 분야 중 사전 출판은 특별히 의욕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전들이 서점의 참고도서 코너를 메우고 있지만, 선반에 꽂히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사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상품간의 전문성이 있는나는 미지수이며, 사전들마다 공통적으로 입고 있는 정열적인 붉은 자켓으로 판단해볼 때, 많은 상품들의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다. 사전 출판은 항상 경쟁이 심한 분야였으며,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전과 같이 24시간을 먹고 자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분야의 이윤가능성을 타진해볼 때, 출판인들은 시장점유율, 가격, 프로모션 등과 사전 편집의 즐거움,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전으로의 새로운 방향 등의 면에서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전 출판 종수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 출판의 기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평이다. 또한, 사전출판은 학술적인 작업의 산물이지만, 매우 상업적인 상품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는 「New Shorter Oxford English Dictionary」를 출판하면서 학술성과 상업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로 고민을 많이 했다. 즉, 호워드 스텐(Howard Stern)

과 루쉬 림보우(Rush Limbaugh) 등의 작품이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99.95달러라는 전혀 저렴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이 사전을 시장에 진출시킬지 걱정했었다. 하지만, 옥스포드 출판부의 이러한 우려는 출판 즉시 이 사전이 25,000부가 팔려나가는 기록을 세우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좋은 상품은 여전히 팔린다”는 것을 보여준 예이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이나 랜덤하우스 영어대사전 등 큰 사전들은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지만, 다양하게 출판되는 대학생판 등의 가격은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1828년에 처음 출판된 「웹스터」사전의 가격은 20달러였는데,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용 사전의 가격도 그 정도이다. 또한, 책 바세세일이 흔한 미국에서도 사전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세일 품목에 잘 끼지 않는다.

대체로, 사전 가격이 전혀 엉뚱하게 매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서점인들도 어떤 사전이든 웬만한 것은 소설보다는 낫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Oxford Shorter Dictionary」와 같이 간혹 등장하는 고가격 사전에도 그러한 저항을 보이지 않는다. 고객이 그 사전을 맘에 들어하고, 그 사전이 우수하다고 평가된다면, 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전 출판의 특성이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CD-ROM과 한 세트에 100달러에 판매된 「랜덤하우스 대사전(Random House Unabridged)」의 경우도 내용이 가격을 압도하여 판매에 성공을 거둔 예이다.

전통적인 사전 출판과 더불어 출판인들은 보조적인 참고도서 출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랜덤하우스는 세련으로 된 「미국 속어 사전(The Historical Dictionary of American Slang)」 중 첫권을 올 가을에 내놓는다. 현대의 언어학을 특이한 방식으로 결합한 「사인 랭귀지 사전(Sign Language Dictionary)」도 랜덤하우스의 신상품이다. 하퍼 콜린스사도 최근 개정된 「미국 사인 랭귀지 사전(The American Sign Language Dictionary)」을 전자판(electronic version)으로 선보인다. 올 가을에 출판될 이 상품은 애니메이션, 게임, 비디오 및 확대-축소 화면 등을 포함하는 진짜 멀티미디어이다. 하퍼 콜린스사는 이 상품을 책과 함께 세트로 내놓거나 따로 판매할 계획이다.

델/델라코트(Dell/Delacorte)사는 사전과 유의어사전(thesauruses)을 중심으로 목록을 발전시켜왔다. 이 출판사는 「American Heritage」 사전을 1970년부터 출판해왔는데 델타 보급판과 델 문고판으로 올여름 3판을 내놓았다. 이 사전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종의 외국어사전, 철자 사전, 문체 매뉴얼, 그

리고 인용구 및 약어 사전 등도 준비하고 있다. 호튼 미플린(Houghton Mifflin)사는 어린이용 「American Heritage」 사전 세트를 출판한다. 올해 새로 나온 3판은 300,000부 이상이 판매되는 성공을 보였다. 이 출판사의 어린이 사전 라인업은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이다.

언어를 다루는 사전 출판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문화적인 쪽으로 옮겨간다. 예를 들어 옥스포드사는 2개국어로 쓰여진 사전을 다양하게 발간하고 있다. 여기에는 옥스포드 불어사전, 옥스포드 스페인어사전, 새로 개정된 포켓 라틴어사전, 포켓 러시아어 사전 등이 해당된다. 옥스포드사는 단순한 외국어사전을 시장에 내놓는 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기획이라고 보고, 옥스포드사와 해당국가의 사전 출판사가 함께 양국의 언어에 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사전 출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비용절감을 위한 종이판 사전

항상 참고도서 출판의 중요한 한 분야였던 페이퍼백 출판은,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더욱 바람직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금년 봄 맥밀런(Macmillan)사는 지리학 사전, 인물전기 사전 그리고 휴대용 큰활자 사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전을 종이판으로 출판했다. 맥밀런사

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 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DITORI

서울편집원스쿨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한국출판학회추천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매체협회지정교육기관

문의(代) 672-1841 · 2 FAX · 671-8317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⑤번 출구방향 100미터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35~4450(100米)

편집 · 취재 기자 교육생 모집

국내 최초의 편집교육기관이 갖는 의미

- 최첨단 전자출판(DTP) 교육을 이룩해냈습니다.
- 전통이 깊은 만큼 교육이 알차습니다.
- 교육시설 / 컴퓨터 편집실(3개소) · 잡지사보편집실 · 단행본 학습지편집실 / DTP실습실
- 전통이 깊은 만큼 취업관리가 체계적입니다.
- 취업률 96%에 대한 전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취업 연계 출판 · 잡지사의 확보도 깊고 넓습니다.
- 문의 즉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현직인을 위한 D.T.P교육

- 과정 : DTP(컴퓨터편집)
- 기간 : 2개월(매킨토시 실무교육)
- 대상 : 현직출판편집자, 편집학원 이수자

편집 · 취재기자로 첫발을!



성공적인 첫 출발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문 · 잡지 · 사보 · 출판 · DTP

편집 · 취재 요원이 필요하신니까?
지금 곧 서울편집으로 전화하십시오

- 모든 취업관리가 전산화 되어 있어 신속한 인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 본원 교육은 현장적용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채용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본원 교육은 성실과 책임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어느 연고를 통해 입사한 요원보다 성실합니다.
- 본원 발행 취업속보(취업 예정자 명단)를 받아 보지 못한 업체에서는 연락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본원 수료생을 채용해 주신 출판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E OULE

ALDE SIGNSCHOOLSE OULE DITORIALDE SIGNSCHOOLS

는 철자 사전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펄컨사의 「뉴 어메리칸 웹스터 핸드 칼리지 사전」은 1958년 이래 118쇄라는 감동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Roget's College Dictionary」도 1958년 첫 출판 이래 발행부수 1천 8백만부라는 기록을 세우고 늘 페이퍼백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어 있는 펄컨사가 자랑하는 상품이다.

스크린으로 보는 전자 사전

사전 출판의 방향을 점치는 데는 더이상 수정 구슬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의 출판의 흐름이 그러하듯이 사전 출판의 미래도 소프트웨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는 일반 사전류보다는 길이가 긴 사전과 고도로 전문화된 사전이 소프트웨어로 바뀌기 알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즉, 여러권으로 된 사전을 소프트웨어판으로 바꾸면 가격면에서도 더 저렴해질 뿐 아니라 종이로 된 상품보다 이용하기도 편리하다는 것이다. 메리엄 웹스터(Merriam Webster)사는 지금까지 전자판 사전의 출판을 제3자에게 맡겼던 관례를 깨고 스스로 전자 출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 출판사의 경우는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태니카와의 연계로 브리태니카가 가진 세련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호튼 미플린사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부서를

독립적인 Infocsoft International Inc로 새로 확장 설립하고 소프트웨어 출판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채비를 갖추고 있다. 사전 출판과 관련된 InfoSoft의 첫 상품은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대학생판을 올가을 플로피 디스크와 종이 형태 두가지를 한세트에 발간하는 것이다. 맥밀린사 역시 사전의 전자출판화에 관한 탄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앞으로 2년동안 맥밀린사는 수백만명에 이르는 CD-ROM 및 온라인 사용자들을 위해 핵심적인 참고도서들에 대한 전략적 전자 출판 계약을 확장할 계획이다. 랜덤 하우스도 자사의 중요한 사전류를 종이판으로 계속 출판함과 더불어 다양한 전자 출판의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다.

그러면, 서점들은 이러한 전자 사전의 쇄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텐포드 대학 서점은 아직 정확한 시장의 형태를 그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곧 그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서점은 지난 5월 고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전시회를 열고 도서 및 소프트웨어 출판인들도 초청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시험해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의 대형 서점 체인의 하나인 보더스(Borders)사도 소프트웨어 출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이 따르는 하지만, 출판의 새로운 추세라는 점을

분명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더스사의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점에 CD-ROM 키오스크(간이서점)를 설치하고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성과를 보아 다른 체인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사전 마케팅

하지만, 그 매체가 종이든 전자이든 또는 둘다이든 사전출판의 성공은 출판사가 프로모션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아무것도 안하면 팔리지 않는다.” 하퍼콜리스사는 「American Sign Language Dictionary」의 종이판/전자판의 프로모션을 위해 4도 POP(구매시점)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 채널과 청각장애자를 지원하는 채널을 포함한 매체 광고캠페인을 하였다. 호튼 미플린사도 「American Heritage」 3권에 대한 성공적인 캠페인을 위해 T-셔츠에서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다. 올해 출판된 어린이판에 대해서도 유사한 테크닉을 활용하였다. 보스톤 은행과 델타 에어라인과의 크로스-마케팅을 통해 출판사가 어린이들에게는 저축채권을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는 복권을 이용하여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도했다.

사전 편집자는 대개 유명 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랜덤하우스는 저자 투어를 시도하여

효과를 본 경우다. 이 회사는 지난해 랜덤하우스 대사전을 출판하면서 15개 소도시 투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방법으로는 책을 특별한 이벤트나 관심분야와 연결시키는 것인데, 예를 들어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언론들이 힐러리에 관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을 때, 때를 맞추어 랜덤하우스의 사전 편집자가 힐러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 발표한다는 식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랜덤하우스는 이 방법을 통해 효과를 보았다.

때로는 일반적인 마케팅전략이 참고도서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옥스포드사는 축약판 옥스포드 영어사전 출판시 데이비드 브링클리(David Brinkley)와 안 딜라드(Annie Dillard)의 인용구를 디스플레이와 광고 그리고 다이렉트 메일에까지 이용하였다.

지금까지의 인간의 지적인 추구를 감안해볼 때, 90년대의 사전출판은 조용하지도 침체되지도 않고, 여전히 격렬한 경쟁 속에서 출판의 중요한 한 분야로 지속될 것이다. 한 사전 출판인의 말대로 “사전 출판은 출판의 여러 분야중 가장 신나고 멋진 분야이며, 뉴미디어의 등장에 힘입어 이러한 믿음은 더욱 확고하게 될 것이다.”

편집·사식 대행 모든글방의 차별성은 이렇습니다.

110-2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39-1 동신빌딩 201호
전화/737-2308 737-2309 팩스/737-2309



- ① 편집과 사식뿐 아니라 기획·집필·Re-Writing·윤문·입력·교정 및 교열·제작에 이르기까지, 출판과 관련된 어떤 과정도 대행해 드립니다.
- ② McIntosh·IBM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갖추고, 원고의 성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매치시킵니다.
- ③ 편집·사식이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④ 흑백 사진이 들어가는 원고도 직접 필름으로 출력하므로 제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캔 비용도 1권당 20컷까지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 ⑤ 의뢰자가 만족하실 때까지 몇 번이라도 교정을 봐 드립니다.
- ⑥ 사식도 편집자가 기본적인 교정을 본 후에 넘겨 드립니다.
- ⑦ 작업이 까다롭거나 양이 적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 ⑧ 어떠한 경우에도 기한을 확실히 지킵니다.

가 격 사 양

- 단행본 기준 -

인 국 판	편집(사식포함)	인화지 출력시	5,500원
		필름 출력시	6,0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인화지 출력시	3,000원
		필름 출력시	4,000원
4x6배판	편집(사식포함)	인화지 출력시	8,000원
		필름 출력시	8,500원
사 식	인화지 출력시	인화지 출력시	4,500원
		필름 출력시	5,500원

※※※※※ 편집·사식 대행업체는 많습니다. 그리고 편집 실무자들의 불만도 역시 많습니다 ※※※※※